



게하시의 탐심

열왕기하 5장 20 ~ 27절

엘리사의 말대로 하여 문둥병이 나은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예물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생각하였습니다.

게하시: “내가 쫓아가서 무엇이랴도 받아내야겠다.”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만나 말하였습니다.

게하시: “우리 주인이 ‘지금 선지자의 생도 두 명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을 위하여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말을 듣고 은 한 달란트를 더하여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15)



엘리사에게로 돌아오던 중 게하시는 은과 옷을 집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 게하시야! 네가 어디에 갔다 오느냐?

게하시: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습니다.

엘리사: 네가 나아만을 만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겠느냐?

지금 은이나 옷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고
네 자손에게까지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욕심을 부린 게하시는 결국 벌을 받아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공부

욕심을 부린 게하시

1. 게하시는 어떠한 죄들을 지었나요?



저거 정말
갖고 싶은데 ...



저의 주인이 물건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곳도 가지
않았었는데요.

2. 엘리사가 “네가 나아만을 만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겠느냐?”라고 말하였을 때 게하시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엘리사가 게하시가 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3. 결국 게하시는 어떠한 벌을 받았나요?

4. 게하시는 문둥병자가 되어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게하시의 죄를 지어 평생을 문둥병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잉태한즉 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15)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욕심을 버려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전도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1절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 줄거리를 요약해서 아래에 써 보세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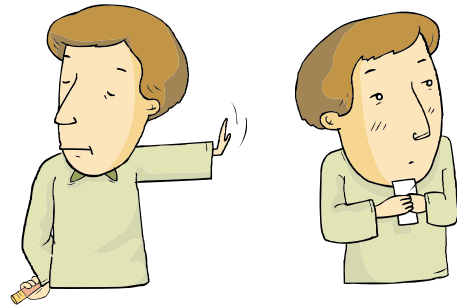
🌸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 나는 욕심나는 물건을 보고 몰래 가져가거나 그 물건을 가지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

.....



🌸 그때 내 마음은 어떠했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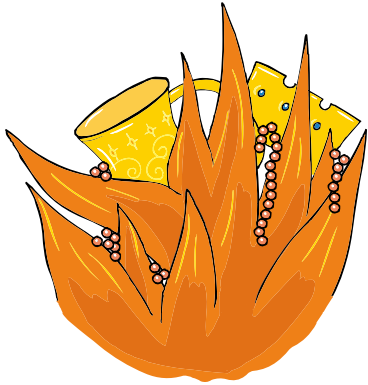
🌸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싶나요?

.....

너희 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23)



예화



욕심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쳐부수기 위해 전진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군인들은 패전을 결심이라도 한 듯 힘없이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그 이유를 재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군인들은 여러 전투에서 얻은 물건들을 몸에 잔뜩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군인들의 행군을 잠깐 멈추게 한 알렉산더는 그 물건들을 모두 모아 불태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군인들은 심한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지만 군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적인 욕심을 잔뜩 짊어진 채 군사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